

<p>◆ 연합 한인 형제회 웹사이트 ☎ http://www.koreansfo.org ◆</p>	
 <p>평화의 도구</p> <p>(제 145 호) 05년 9월</p>	<p>*영적보조자 : 이 규성(바오로),sfo (714)537-1974</p> <p>*회 장 : 이 병재(힐라리오),sfo (714)879-8679</p> <p>*부회장 : 오 수원(바오로), sfo (714)998-2898</p> <p>*서 기 : 유 근숙(올리아),sfo (714)572-1828</p> <p>*회 계 : 박 용원(야고보),sfo (562)924-5840</p> <p>*양 성 : 박 영철(요한),sfo (562)867-5499</p> <p>*지도직 : 박 영환(빅토리오),sfo (714)638-1944</p>
<p>▶월례회: 매월 4째 일요일 오후 12:30분 ▶장소: 성 토마스 성당 412 N. Crescent Way Anaheim, CA 92801</p>	
<p>E-MAIL</p>	<p>*김 용철(도미니꼬)신부: kycofm@hanmail.net</p> <p>*이 규성(바 오 로): paullee92840@yahoo.com</p> <p>*이 현일(어거스틴): bonumsfo@yahoo.com</p> <p>*유 근숙(올 리 아): juliayoo@sbcglobal.net</p> <p>*이 세홍(바 오 로): paulsaelee91@yahoo.com</p> <p>*박 영환(빅토리오): ypark98@yahoo.com</p> <p>*박 영철(요 한): johnparksfo@hanmail.net</p> <p>*박 용원(야 고 보): jywpark@yahoo.com</p> <p>*이 용석(안또니오): ysleesfo@yahoo.com</p> <p>*이 현옥(글 라 라): clees811@yahoo.co.kr</p> <p>*이 종호(마 테 오): kleesfo@yahoo.com</p> <p>*백 호명(프란치스코): frankb@koreansfo.org</p>

형제회 소식

■ 가톨릭 워커 봉사

지난 8월 7일(일) -산타아나 가톨릭 워커에서 무숙자들을 위하여 형제회 및 평화의 모후 단원과 함께 음식 봉사를 하였습니다.

■ 지구 형제회 전체 모임

- 일시: 10월 8일 (토) 9:00am-4:00pm
- 장소: Our lady of Guadalupe Parish Ctr.
900 W. La Habra Blvd, La Habra
- 대상: 전 형제회 전 회원
- 기타: 점심은 각자 준비
- Franciscan Sweat shirts 판매 안내
1개 \$20/ 2개 \$35

■ 새로 오신 분

- 김희수(레지나), 마순자(안나) -5/22(일)
- 최화자(안젤라), 박경옥(모니카) -6/26(일)
- 이준석(테레사) -7/24(일) 재 가입
- 한강희(테레사) -8/21(일)

♥ 환영합니다 ♥

■ 유 신부님 방문

유수일(사베리오) 신부님께서 오는 11월 13-30일 미국을 방문하시며 11월 27일(일) OC 월례회에 참석하시어 피정을 겸할 계획입니다.

■ 북남미 연수회 폐막

북남미 연수회가 캐나다에서 지난 8월 25-28일 18 형제회에서 약155명 참석하여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다음 연수회는 2008년 LA 형제회에서 추최 할 예정입니다.

■ 서약자 년회비

지구형제회에 납부하는 종신서약자 년회비가 04년도 (04년 현재 종신서약자) \$30로 인상되었습니다만 통보가 늦은 관계로 종전 회비 \$25를 납부하여 그 차액 \$5 을 추가로 납부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해당자는 담당자에게 차액을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회 소감】

7차 북남미 연수회를 다녀와서

이용석(안토니오) + 이수경(안나)

성요한 비엔나 토론토 형제회가 주최하는 제 7 차 북남미 연수회(2005. 8.25-28) 와 3박 4일 (8/28-31) 퀘벡 성지 순례를 뜻있게 마치고 귀국 하였습니다. 우리 형제회에서는 Rock De Spain 지구형제회장을 포함 11 명이 참석하였고, 가든 그로브 성 글라라 예비 형제회 에서 8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총 18개 형제회가 참가하였으며, 145 명의 회원과, 3명의 순례자 그리고 6명의 성직자, 수도자를 포함 총 154명이 참가하는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주최하신 토론토 형제회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연수회 장소는 갈멜 수도원(6503 Stanley Ave, Niagara Falls, Ontario, Canada) 이었으며, 숙소가 충분치 못하여 참가자중 32 명은 수도원에서 가장 가까운 Motel 에 숙소를 정하고 출퇴근을 하였습니다. 이 수도원은 나이아가라 폭포와 걸어서 10 분 거리 였으므로 조식으로 산책하기가 매우 좋았습니다. 연수회 참가자들을 8 개 그룹으로 나누었으며, 3일간의 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성소 체험담. 김말수 세라피나 FMM 수녀
- 2). 회개, 신아의 발달, 그리고 프란치스코, 오상환 요셉 OFM Conv. 신부
- 3). 재속 프란치스코 성소 체험. 김순옥 이레네 자매.(뉴저지 형제회)
- 4). 재속 프란치스코 양성, 그목표와 우리의 현실. 김충육 비오 신부
- 5). 재속 프란치스코 양성방식.

이제회 로사리아 자매.(토론토 형제회)

6). 프란치스코 공동체, 그 이상과 현실.

오상선 바오로 신부님. OFM 한국 관구장.

7). 재속 형제회 공동체, 그 이상과 현실, 사도직. 김영배 형제(OC 형제회)

이상의 강의는 모두가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김충육 비오 신부님의 프란치스코의 양성, 목표 그리고 현실중에서, 2 중 문화와 정체성과 그 현실, 그리고 다민족 문화권에 속해있는 우리 프란치스코로서 해야할 목표, 이에 첨가하여 김영배 요한 형제의 그 현실과 문제점 지적 그리고 우리 프란치스코가 해야할 일들을 상세히 조목조목 열거하였습니다. 3박 4일간, 8개 그룹으로 나누어 진지한그룹토의와 18 개 형제회원들의 사랑의 친교, 이렇게 프란치스코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느님 은총에 감사할 뿐입니다. 낙오자 없이 무사히 피정을 마치고 8/28 오후부터 예정된



“퀘벡” 성지순례가 시작되었으며, 성지순례자 54명 외는 전부 해산한 것입니다.

저희 내외는 45년전 Niagara Falls 와 Toronto 에 신혼여행을 왔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희망도 많았고, 포부도 컸었지요.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인생 환혼기에 그 시절의 추억을 가슴에 안고 찾아왔습니다. 감개가 무량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공항에서 갈멜 수도원(피정장소) 까지의 관광버스 속에 저의 잠바를 놓고 내렸던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으나 이 분실물은 결국 찾지를 못하고, 그 옷 속에 있던 지갑 속에 각종 증명, Credit Card, 현찰 등이 없어진 것입니다. 도착하자마자 이런 일이 생기고 보니 기분이 우울하고, 관광버스는 우리를 내려주고 차고로 직행하였다고 하는데, 차고에

서나 여행사에서는 그 차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 45년전 이곳은 평화스러운 마을로 기억되며, 그 시절의 이곳 사람들의 친절하고 소박하였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관광 첫날, 나이아가라 주변 관광, 테이볼락, 월풀, 케블 카 그리고 수력발전소 등 관광하였으며 이 시설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다른 변함이 없었습니다. 저녁에는 캐나다에 제일 크다는 “토론토”로 이동하였으며 토론토 중심가를 통과하며 저녁이라 야경을 구경한 셈이지요.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CN Tower (높이 500m) 밑에서 잠시 쉬고, 시간이 늦어 올라가지는 못하였습니다. 토론토는 인구가 500 만이고, 한국인은 약 4천명 정도가 거주한다고 합니다. 관광 2 일째(9/29 월) 는 “몬트리올”로 이동하여, 노트담 성당, 성 요셉 성지를 순례하였습니다. 여기 성지는 구라파 의 성지같이 규모가 크지는 않으나 건축 형태가 절묘하고 아기자기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몬트리올”시는 캐나다에서 두번째로 큰 도시로서 인구는 400만 정도라고 합니다. 이 도시에는 “한국관”이라는 우리의 고유 음식점이 있으며 음식맛이 아주 좋았습니다.

관광 3일째(9/30 화) 는 아침식사 후 “퀘벡”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 퀘벡 주는 공용어가 영어, 불어 를 함께 사용하는 곳으로 학교도 영어권과 불어권으로 나뉘어 운영된다고 합니다. 표지판도 완전히 영, 불어로 공용으로 써어진 곳이 많습니다.

이 “퀘벡” 주를 캐나다로 부터 독립을 하고자 “튀르드” 수상 집권시(1990 년 중반기) 국민투표를 실시하였으나 근소한 차이로 독립이 불허 되었다고 하며, 특히 이주의 젊은 층이 독립하여 한국가로서 운영하기에는 갖추어야할 조건이 미비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독립 운운 은 없을 것 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라 합니다.

“퀘벡” 으로 이동 후 “보프레 성안나” 성당을 순례하였습니다. 이 성당은 성모 마리아

의 모친 “안나” 를 기념하기 위하여 세운 성당이라고 합니다. 점심 식사 후는 이번 성지 순례에 마지막 Course 인 “트루아 리베에” 로 이동하여 ” 노트담 드캅” 성지에 도착, 순례자들을 위한 숙소 “Madonna House” 에 여장을 풀고 밤에 촛불 행렬을 끝으로 성지순례의 막을 내렸습니다.

제 7 차 북남미 연수회에 기획과 운영, 그리고 마지막 성지 순례 까지 동행 안내하여주신 김충욱 비오 신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영육간의 건강이 주님의 은총 속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언합니다.

【연수회 폐막 인사】

평화를 빕니다

토론토 성요한 비엔나 형제회

사랑하고 공경하을 북남미 한인 형제회의 형제 자매님들. 지난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캐나다의 나이아가라 폭포 근처에 있는 가르멜 피정 센터에서 155명의 형제 자매들이 참석한 제 7 차 북남미 연수회는 형제적 친교 속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연수회 기간 동안, 신앙인으로서 하느님과 만나는 원초적 체험 뿐만 아니라 재속 프란치스코로서의 정체성과 양성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나누고 미래의 비전을 제안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회장단 회의를 통해서 다음 연수회는 3년 후인 2008년, L.A. 성 프란치스코 형제회가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차기 개최 형제회의 형제자매들을 축복하며 3박 4일에 아쉬운 이별을 해야했습니다. 연수회 후, 54명의 형제 자매들은 퀘벡의 성지들을 순례하고 명소들을 관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토론토 형제회에서는 나름대로 최고의 봉사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하였으나, 본의

아니게 미비한 점들이 많았으며, 그로 인해 몇몇 형제 자매님들께서 불편하지 않으셨을까 두려운 마음이 납니다. 이 부족한 점은 우리 사부 성 프란치스코께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연수회 사진 자료 및 기타 서식들은 위원회 해산 회의 후 각 형제회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7차 북남미 연수회를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형제회의 평의회와 회원 한분 한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사부님의 축복 안에서

【러시아 선교】

발가락 없어서..

김 용철(도미니꼬) 신부, OFM

이곳의 생활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사실 그동안 저녁에 봉헌하던 평일 미사를 이제는 금요일과 축일이나 대 축일을 제외하고는 오전 8시 미사를 봉헌한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서는 평일 미사에 참석하는 신자가 적어서 오히려 일주일에 한번씩 하니, 거의 4-5명 이상씩 미사에 참석하게 된다. (물론 수도자들을 제외하고) 평일에 매일 있는 미사에는 거의 1명이나 많아야 2명 참석하던 신자들이 일주일에 한번 저녁에 미사를 하니, 더 많이 참석하고 있다.

아침 미사를 봉헌하기 위해, 수도원의 아파트를 내려와 들고 온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길에 아파트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한 할머니를 스쳐지나갔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행려자의 범주에 들어가는 발가락과 손가락이 없는 분이였다. 이것을 알게 된 것은 점심을 하기 위해 수도원에 오는 길에, 아파트 바닥에 앉아 있는 할머니 곁에 같이 앉아서, 이것 저것 물어보았다.

병원에서 나와서(거의 쫓겨나온 것 같다.) 집

방향과는 전혀 반대쪽인 수도원이 있는 아파트까지 온 것은 이틀에 걸려서다. 결국 할머니를 차에 태우고, 알려주는 길을 따라 집을 찾아 나섰다. 그리 어렵지는 않았지만, 결국 집까지 가지 못하고 그 근처에 내려달라는 것이다. 정말로 집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 물론 한쪽 발의 발가락과 손가락은 이미 동상으로 인해 절단된 채였고, 제대로 걸을 수 없는 몸을 주체도 못하면서 혼자 가려는 할머니를 내려 놓고 돌아오는 길이 무겁기만 했다.

이곳의 행려자들의 큰 문제는 추운 겨울을 지내고도 동상이나 화상으로(빈 건물이나 지하에서 불을 피우고 자다가)인한 후유증이 더 심한 경우를 겪게 된다.

현재 시작한 행려자 복지 센터는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겨우 기초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기초를 놓기 위한 땅의 깊이만 해도 4m를 파고 그곳에 기초 공사를 위한 콘크리트 작업을 하였다. 거의 건물의 한층 높이이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건물을 짓는 일을 해야하는데, 끊임없이 오르는 물가로 인해 불어난 공사비로 인해 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그만한 공사비가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주님의 은총과 많은 은인들의 도움으로 오늘의 우수리스크 공동체가 설립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좀 더 많은 은인들의 협조와 기도를 부탁하고 싶다.

이 곳이 정말로 갈 곳이 없는 이들의 삶의 보금자리가 되도록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을 간절히 기원해 본다.

믿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눈에 보이는 표지로 찾으려는 마음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유혹에 빠져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손에 잡으려 하면 멀어지고 가까이 보려고 하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볼 수 있으며
굳은 믿음으로 주님을 알고 깨달을 것입니다